

# 2024년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 변화와 특징<sup>1)</sup>

이계임 | 정희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가계 소득과 지출을 조사·발표해 오고 있으며, 2025년 3월 '2024년도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전국 약 7,200가구 대상 월평균 소득지출 조사 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발표함.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의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1. 2024년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 소비지출 변화

-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4년 289만 478원으로 2023년의 279만 2,035원 대비 3.5% 증가하여 2022년 이후 증가 추세가 약간 둔화됨. 소비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 1,510원으로 2023년에 비해 1.2% 증가함.
- 한편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하여 85만 9,181원을 기록함.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 6.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임. 식품 소비지출을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적용<sup>2)</sup>한 실질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은 70만 6,069원으로 2023년 대비 0.9% 증가함.

1) 본 웹진에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DOI번호는 10.23333/RN.50150257.V1.1/10.23333/RN.50150243.V2.1임.

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 지출액을 각각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합산함.

- 엔겔계수(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는 2019년 27.7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었던 2020년 29.4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9.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2023년에는 29.5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4년 29.7로 소폭 반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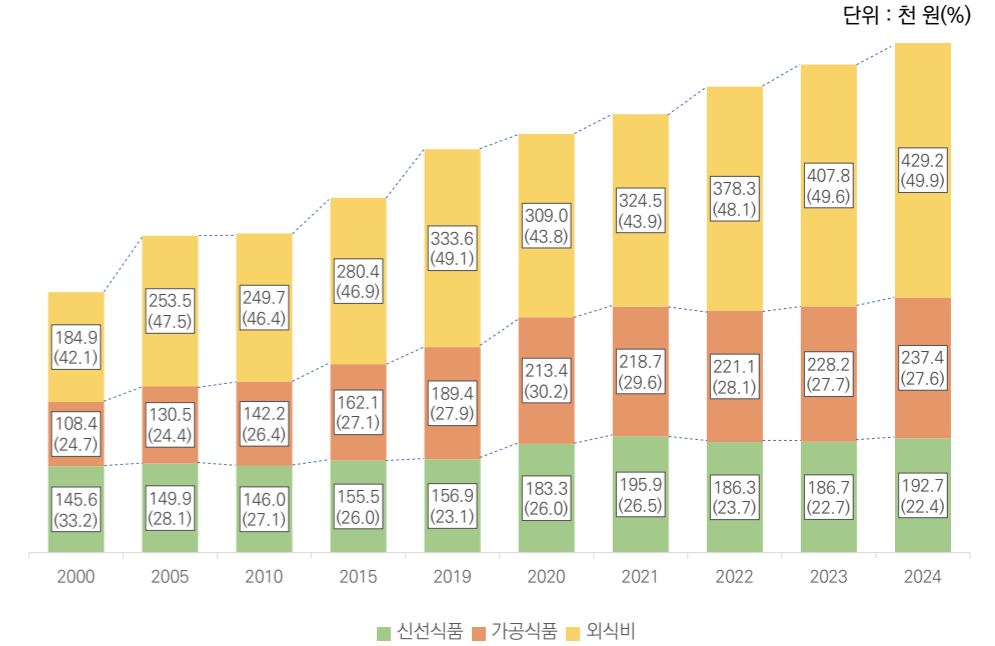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식품 소비지출 추이



주 1) 소비지출의 실질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한 값임.  
 2) 식품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외식비) 지출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질금액은 해당 지출액 각각을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외식으로 디플레이트한 값의 포함임.  
 3) 2000년, 2005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를 신선, 가공, 외식으로 구분하여 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가구 식품 소비의 49.1%를 점하던 외식비 비중은 2021년 43.9%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48.1%로 회복세를 보여 2024년은 49.9%로 지출액 절반 수준으로 확대됨. 2024년 외식비는 4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은 2019년까지 15만 원 전후로 정체되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19에 따른 가정식 증가로 18만 3천 원에서 2021년 19만 6천 원까지 증가함.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은 1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지출 비중은 2024년 22.4%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은 2020년 30.2%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 지출 비중은 27.6%로 전년도의 27.7%와 비슷한 수준임. 지출액 기준으로는 2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2024년 식품유형별 구성비는 신선식품 22.4%, 가공식품 27.6%, 외식 49.9%로 전년도에 비해 외식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냄.

###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 2024년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 변화

- 가공식품 품목별로 2024년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곡물가공품(5만 9백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함. 곡물가공품은 과거부터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0년대부터 20%대를 유지하며 2024년에는 가공식품 합계 중에서 21.4%를 차지함.
- 2024년 가구당 월평균 당류 및 과자류의 지출액은 3만 9백 원으로 곡물가공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 증가함. 가공식품 지출액 중 당류 및 과자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13.0%로 나타남.
- 기타식품의 월평균 지출액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8.6% 증가하여 과일가공품과 함께 가공식품 분류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만 7천 4백 원으로 전체 가공식품 지출액 중 11.6%를 차지함.
- 유가공품의 월평균 지출액은 2010년부터 2만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지출액은 2만 1천 7백 원으로 전년의 2만 8백 원에 비해 4.4% 증가함.
- 조미식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확대로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7%대로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외식 확대에 의해 월평균 지출액이 감소세로 접어들. 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금 가격 상승 등으로 월평

균 지출액이 1만 5천 6백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1만 5천 5백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함.

- 주류의 월평균 지출액은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1만 7천 8백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함.
- 2024년에 전년 대비 가공식품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유지류(11.4%), 채소가공품(9.2%), 주스 및 음료(9.2%), 육가공품(6.8%), 과일가공품(5.9%), 당류 및 과자류(5.3%), 기타식품(4.9%), 유가공(4.4%) 등이며, 월평균 지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품목은 주류(-1.2%), 조미식품(-0.4%)임. 유지류의 경우, 최근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식용유(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 등) 소비가 확대된 가운데, 2024년 국제 유가가 전년 대비 9.3% 상승하며 유지류 월평균 지출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단위: 천 원(%)

품목 분류	연평균 증감율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00-2010	2010-2024	2023-2024
곡물가공	19.8(18.3)	24.1(18.5)	30.8(21.6)	33.1(20.4)	38.2(20.2)	43.3(20.3)	45.0(20.6)	47.4(21.5)	48.9(21.4)	50.9(21.4)	4.5%	3.7%	4.1%
육가공	7.3(6.8)	6.7(5.1)	8.0(5.6)	9.6(5.9)	12.2(6.4)	14.5(6.8)	14.9(6.8)	15.2(6.9)	16.5(7.2)	17.6(7.4)	0.8%	5.8%	6.8%
수산가공	15.6(14.4)	17.4(13.4)	15.2(10.7)	16.9(10.4)	16.8(8.9)	18.9(8.9)	18.3(8.4)	17.9(8.1)	18.5(8.1)	18.6(7.8)	-0.2%	1.4%	0.6%
유가공	17.7(16.3)	19.9(15.2)	20.9(14.7)	20.4(12.6)	20.2(10.7)	21.4(10.0)	21.2(9.7)	20.3(9.2)	20.8(9.1)	21.7(9.1)	1.7%	0.3%	4.4%
유지류	2.4(2.2)	2.3(1.7)	2.4(1.7)	2.7(1.7)	2.6(1.4)	3.3(1.5)	3.6(1.7)	3.7(1.7)	3.9(1.7)	4.3(1.8)	0.4%	4.2%	11.4%
과일가공	0.4(0.3)	0.7(0.6)	1.3(0.9)	2.9(1.8)	3.3(1.8)	3.5(1.6)	3.6(1.7)	3.3(1.5)	3.8(1.7)	4.1(1.7)	13.2%	8.6%	5.9%
채소가공	1.3(1.2)	1.2(0.9)	2.1(1.5)	2.2(1.3)	2.5(1.3)	3.0(1.4)	3.0(1.4)	2.7(1.2)	2.6(1.2)	2.9(1.2)	4.8%	2.3%	9.2%
당류 및 과자류	12.6(11.6)	17.4(13.3)	19.0(13.3)	23.9(14.8)	25.2(13.3)	27.4(12.8)	27.0(12.3)	28.2(12.8)	29.4(12.9)	31.0(13.0)	4.2%	3.6%	5.3%
조미식품	10.1(9.4)	11.8(9.0)	10.1(7.1)	11.2(6.9)	12.8(6.8)	15.6(7.3)	15.8(7.2)	14.5(6.6)	15.6(6.8)	15.5(6.5)	-0.1%	3.1%	-0.4%
기타식품	5.0(4.6)	7.4(5.7)	8.6(6.1)	11.1(6.8)	20.0(10.5)	23.5(11.0)	25.2(11.5)	25.7(11.6)	26.1(11.5)	27.4(11.6)	5.7%	8.6%	4.9%
커피 및 차	4.0(3.7)	4.8(3.7)	6.2(4.3)	6.7(4.1)	8.2(4.4)	9.1(4.3)	9.4(4.3)	9.5(4.3)	9.6(4.2)	9.7(4.1)	4.4%	3.3%	1.8%
주스 및 음료	6.9(6.4)	9.7(7.4)	9.4(6.6)	10.7(6.6)	13.7(7.2)	14.4(6.7)	14.3(6.5)	14.8(6.7)	14.5(6.3)	15.8(6.7)	3.1%	3.8%	9.2%
주류	5.2(4.8)	7.0(5.4)	8.3(5.8)	10.8(6.6)	13.8(7.3)	15.7(7.3)	17.4(8.0)	17.9(8.1)	18.0(7.9)	17.8(7.5)	4.6%	5.6%	-1.2%
합계	108.4(100.0)	130.5(100.0)	142.2(100.0)	162.1(100.0)	189.4(100.0)	213.4(100.0)	218.7(100.0)	221.1(100.0)	228.2(100.0)	237.4(100.0)	2.8%	3.7%	4.0%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곡물가공품 지출은 빵 및 떡류를 포함, 수산가공품 지출은 염건수산, 기타수산가공, 해조·해조가공품을 합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품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구의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액 비중을 1~30위까지 산출하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
- 2024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빵 및 기타 빵, 한과 및 기타 과자, 기타 육류가공품, 즉석·동결식품 순이며, 식빵 및 기타 빵, 한과 및 기타 과자는 매년 3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음.
- 즉석·동결식품은 2020년 이후 3위를 차지하다가 2022년부터 기타육류가공품의 월평균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4위를 기록함. 기타육류가공품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5위, 2020~2021년 4위, 2022~2024년 3위로 순위가 높아짐.
- 반찬류는 2000년도 2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도 10위권에 기록되어, 그 이후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7위, 2023~2024년에는 6위를 기록함.

- 생수의 월평균 지출액은 2000년과 2010년 모두 3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2019년 20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8위, 2023~2024년에는 22위를 기록함.
- 김치는 2000년도에는 30위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0년에 24위를 기록하였고, 2020년 20위, 2021년 22위, 2022~2023년에는 19위, 2024년에는 18위로 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함.
- 말린 고추는 2000년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한 품목이었으나 2010년 14위, 2019년에는 16위까지 하락함. 2020년 14위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15위, 2022년에는 20위, 2023년에는 16위, 2024년에는 20위로 하락하여 간편화 경향을 반영함.
- 햄 및 베이컨은 2000년 16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30위 순위 밖으로 하락함.

연도별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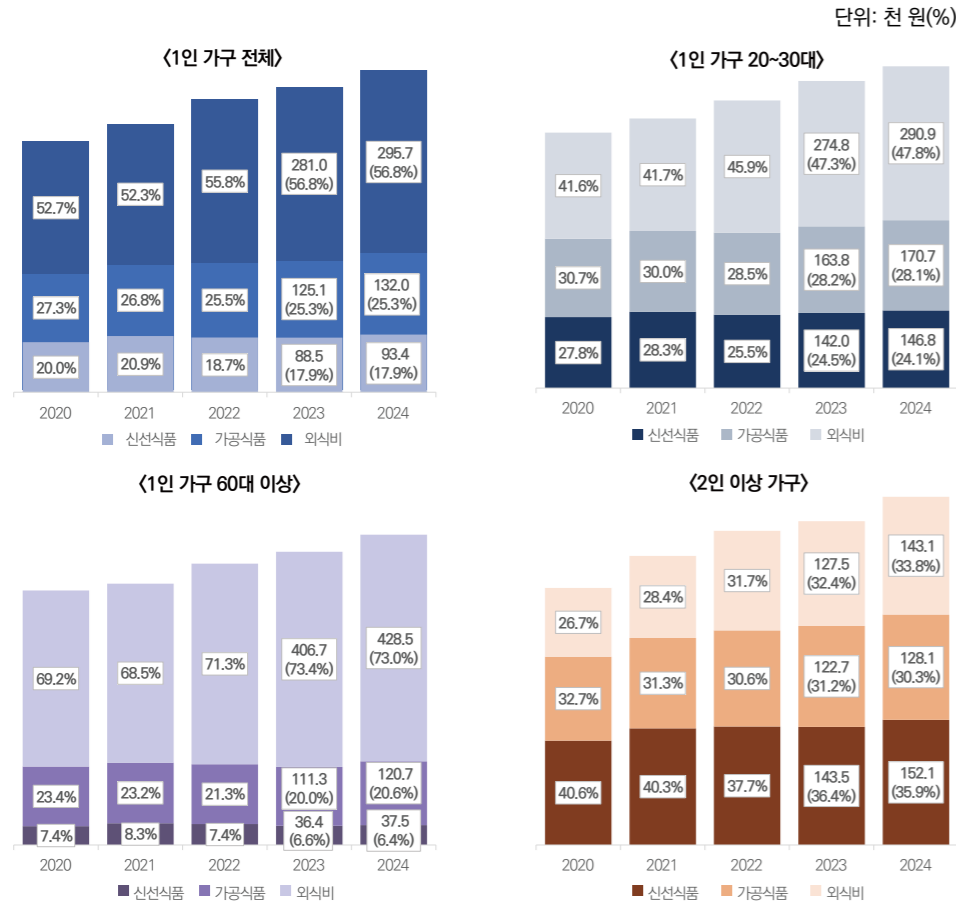
2000		2010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우유	9.2	1 우유	8.4	1 식빵및기타빵	7.8	1 식빵및기타빵	7.4	1 식빵및기타빵	7.7	1 식빵및기타빵	8.5	1 식빵및기타빵	8.5	1 식빵및기타빵	8.5
2 한과및기타과자	6.2	2 식빵및기타빵	7.2	2 한과및기타과자	7.2	2 한과및기타과자	6.8	2 한과및기타과자	6.4	2 한과및기타과자	6.7	2 한과및기타과자	6.9	2 한과기타과자	6.8
3 식빵및기타빵	6.0	3 한과및기타과자	7.2	3 우유	5.2	3 즉석·동결식품	5.0	3 즉석·동결식품	5.0	3 기타육류가공품	5.1	3 기타육류가공품	5.5	3 기타육류가공품	5.8
4 기타육류가공품	4.3	4 라면류	3.4	4 즉석·동결식품	4.9	4 기타육류가공품	4.8	4 기타육류가공품	4.9	4 즉석·동결식품	4.9	4 즉석·동결식품	4.7	4 즉석·동결식품	4.7
5 말린 고추	3.7	5 커피	3.3	5 기타육류가공품	4.5	5 우유	4.7	5 우유	4.4	5 우유	4.3	5 우유	4.2	5 우유	4.0
6 김	3.3	6 기타육류가공품	3.3	6 맥주	3.7	6 맥주	3.6	6 맥주	3.8	6 맥주	3.7	6 반찬류	3.5	6 반찬류	3.5
7 라면류	3.3	7 아이스크림	3.3	7 기타음료수	3.4	7 라면류	3.3	7 반찬류	3.6	7 반찬류	3.6	7 맥주	3.4	7 맥주	3.5
8 기타음료수	3.3	8 요구르트	3.2	8 커피	3.3	8 커피	3.3	8 커피	3.3	8 아이스크림	3.3	8 기타음료수	3.3	8 기타음료수	3.4
9 요구르트	3.1	9 기타음료수	3.2	9 라면류	3.2	9 아이스크림	3.1	9 아이스크림	3.2	9 기타음료수	3.3	9 아이스크림	3.2	9 아이스크림	3.4
10 떡	3.0	10 떡	2.9	10 반찬류	3.0	10 기타음료수	3.0	10 기타음료수	2.9	10 커피	3.2	10 커피	3.1	10 커피	3.0
11 커피	2.8	11 과일 및 야채주스	2.7	11 아이스크림	2.9	11 반찬류	3.0	11 라면류	2.9	11 라면류	3.0	11 라면류	3.1	11 기타곡물가공품	2.9
12 분유	2.8	12 맥주	2.6	12 요구르트	2.8	12 요구르트	2.8	12 기타곡물가공품	2.7	12 기타곡물가공품	2.9	12 기타곡물가공품	2.9	12 라면류	2.9
13 과일 및 야채주스	2.7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6	13 요구르트	2.7	13 요구르트	2.4	13 요구르트	2.4	13 요구르트	2.5
14 아이스크림	2.6	14 말린 고추	2.4	14 과일 및 야채주스	2.3	14 말린 고추	2.5	14 떡	2.3	14 떡	2.3	14 떡	2.3	14 떡	2.3
15 맥주	2.3	15 두부	2.0	15 떡	2.3	15 떡	2.3	15 말린 고추	2.2	15 소주	2.0	15 소주	2.0	15 케이크	1.8
16 햄 및 베이컨	2.0	16 케이크	1.9	16 말린 고추	2.2	16 과일 및 야채주스	2.2	16 소주	2.1	16 케이크	2.0	16 말린고추	1.9	16 과일야채주스	1.8
17 기타곡물가공품	1.9	17 반찬류	1.8	17 소주	1.9	17 소주	2.1	17 케이크	2.0	17 말린고추	1.8	17 케이크	1.9	17 소주	1.8
18 두부	1.6	18 김	1.7	18 케이크	1.8	18 케이크	1.8	18 과일 및 야채주스	1.9	18 과일및야채주스	1.6	18 과일가공품	1.9	18 김치	1.8
19 젓갈	1.5	19 햄 및 베이컨	1.6	19 과일가공품	1.8	19 과일가공품	1.6	19 과일가공품	1.7	19 생수	1.6	19 김치	1.7	19 과일가공품	1.7
20 참기름및들기름	1.5	20 소주	1.6	20 생수	1.6	20 김치	1.6	20 생수	1.6	20 김치	1.5	20 두부	1.6	20 말린고추	1.7
21 소주	1.5	21 즉석·동결식품	1.5	21 두부	1.4	21 생수	1.5	21 두부	1.5	21 두부	1.5	21 과일야채주스	1.6	21 두부	1.6
22 반찬류	1.4	22 채소가공품	1.5	22 김치	1.3	22 두부	1.5	22 김치	1.5	22 과일가공품	1.5	22 생수	1.6	22 생수	1.5
23 마른멸치	1.4	23 마른멸치	1.4	23 채소가공품	1.3	23 채소가공품	1.4	23 채소가공품	1.4	23 채소가공품	1.5	23 채소가공품	1.5	23 채소가공품	1.2
24 케이크	1.3	24 김치	1.3	24 김	1.3	24 김	1.3	24 기타조미식품	1.2	24 기타조미식품	1.2	24 와인과일주	1.2	24 김	1.2
25 잼,꿀,조청	1.2	25 분유	1.2	25 햄 및 베이컨	1.2	25 기타조미식품	1.2	25 김	1.1	25 김	1.1	25 기타수산가공	1.1	25 기타조미식품	1.2
26 어묵	1.2	26 수산동물통조림	1.2	26 차	1.0	26 햄 및 베이컨	1.2	26 햄 및 베이컨	1.1	26 차	1.1	26 김	1.1	26 기타수산	1.1
27 채소가공품	1.2	27 기타미분류식품	1.2	27 두유	1.0	27 차	1.0	27 차	1.0	27 기타미분류식품	1.1	27 기타조미식품	1.1	27 사탕및젤리	1.1
28 기타조미식품	1.2	28 국수류	1.1	28 사탕 및 젤리	1.0	28 치즈	1.0	28 두유	1.0	28 국수류	1.0	28 차	1.1	28 차	1.1
29 마른오징어	1.2	29 두유	1.1	29 기타조미식품	1.0	29 국수류	1.0	29 국수류	1.0	29 햄 및 베이컨	1.0	29 기타미분류식품	1.1	29 국수류	1.1
30 수산동물통조림	1.1	30 어묵	1.1	30 수산동물통조림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0	30 사탕및젤리	1.0	30 사탕및젤리	1.1	30 기타미분류식품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3.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지출 변화

-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율이 신선식품비 5.6%, 가공식품비 5.5%, 외식비 5.2%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지출액 비중이 유사하게 유지함.
- 2024년 2인 이상 가구는 전년 대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이 신선식품 6.0%, 가공식품비 4.4%, 외식비는 12.2%로 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함. 외식비가 식품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p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과 신선식품비 비중은 각각 0.1%p와 0.4%p 감소함.
-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구성에 큰 차이를 나타냄. 20~30대 1인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2024년에 73.0%로 매우 높고,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이 각각 20.6%와 6.4%를 점함.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으나 33.8%로 20~30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비중이 각각 35.9%와 30.3%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월평균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2)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로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곡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1.2%, 21.4%로 가장 높았고, 유지류와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비중은 공통적으로 모두 1% 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12.8%), 주류(10.4%), 주스 및 음료(8.7%), 커피 및 차(4.7%)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당류 및 과자류(13.0%), 유가공품(9.5%), 수산가공품(8.2%), 육가공(7.7%)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1인 가구 20~30대는 곡물가공품(24.9%), 당류 및 과자류(15.6%), 주류(13.8%), 기타식품(12.2%), 주스 및 음료(11.7%)가 높은 비중을 점함. 1인 가구 60대 이상은 조미식품(12.5%), 기타식품(11.5%), 수산가공품(11.4%)이 월등히 높은 반면, 타 가구와 비교하여 곡물가공품(18.3%)의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곡물가공품	21.2	24.9	18.3	21.4
육가공품	5.5	5.2	5.1	7.7
수산가공품	7.1	2.9	11.4	8.2
유가공품	7.2	4.8	9.6	9.5
유지류	1.6	0.8	2.7	1.9
과일가공품	1.6	0.8	2.1	1.8
채소가공품	1.0	0.4	1.7	1.3
당류 및 과자류	11.7	15.6	9.0	13.0
조미식품	6.4	2.3	12.5	6.9
기타식품	12.8	12.2	11.5	11.2
커피 및 차	4.7	4.5	4.3	4.0
주스 및 음료	8.7	11.7	5.7	6.2
주류	10.4	13.8	6.1	6.9

주 1) 곡물가공품 지출액은 빵 및 떡류를 포함, 수산가공품 월평균 지출액은 염건수산, 기타수산가공, 해조·해조가공품을 합산한 값임.  
2)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월평균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3) 비중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합계가 100.0과 차이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4년 가구원수별 상위 지출 품목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식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의 비중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남. 3순위 품목은 1인 가구의 경우 즉석동결식품이, 2인 이상 가구는 기타육류가공품이 차지함.
- 1인 가구는 맥주와 커피의 순위가 각각 4위와 8위를 기록한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맥주는 8위, 커피는 10위를 차지함. 2인 이상 가구에서 우유 지출액은 5위인데 반해 1인 가구에서는 11위를 차지하여 다소 낮은 순위를 보이거나, 1인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대인 경우에는 5위로 우유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인 가구는 기타음료수가 5위, 생수와 소주의 순위가 각각 13위, 15위, 양주 23위, 와인 25위로 2인 이상 가구의 9위(기타음료수), 19위(소주)에 비해 음료 및 주류 항목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와인, 양주 모두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주스 및 음료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30대의 1인 가구는 식빵 및 기타빵, 한과 및 기타과자, 즉석동결식품이 1~3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음료수(4위), 커피(12위), 양주(13위), 와인(14위) 등의 지출이 큰 특징이 있음. 이에 반해 60대의 1인 가구의 경우 우유(5위), 요구르트(8위) 등 유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간단히 식사를 대체할 만한 떡(7위)의 지출 또한 큼. 60대 가구는 김장을 하거나, 장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말린 고추(3위), 참깨들깨(20위) 지출 비중도 높은 것이 특징임.

■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 비중 상위 품목 변화

순위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및기타빵	7.9	식빵및기타빵	10.8	식빵및기타빵	5.5	식빵및기타빵	8.5
2	한과기타과자	6.0	한과기타과자	8.2	반찬류	4.9	한과기타과자	6.8
3	즉석동결식품	5.5	즉석동결식품	8.0	말린고추	4.8	기타육류가공품	6.0
4	맥주	4.6	기타음료수	6.7	기타육류가공품	4.3	즉석동결식품	4.4
5	기타음료수	4.5	맥주	6.6	우유	4.2	우유	4.2
6	기타육류가공품	4.3	아이스크림	5.2	한과기타과자	4.1	반찬류	3.4
7	반찬류	3.9	기타곡물가공품	4.3	떡	3.3	아이스크림	3.3
8	커피	3.5	기타육류가공품	3.9	요구르트	3.2	맥주	3.2
9	기타곡물가공품	3.5	라면류	3.9	커피	3.2	기타음료수	3.1
10	라면	3.3	케이크	3.7	즉석동결식품	3.1	커피	3.0
11	우유	3.2	생수	3.5	기타곡물가공품	2.8	기타곡물가공품	2.8
12	아이스크림	3.1	커피	3.2	김치	2.8	라면류	2.8
13	생수	2.5	양주	2.9	소주	2.5	요구르트	2.6
14	김치	2.3	와인과일주	2.2	두부	2.5	떡	2.4
15	소주	2.3	우유	2.2	기타음료수	2.4	과일및야채주스	1.8
16	요구르트	2.3	반찬류	2.0	라면류	2.3	말린고추	1.8
17	떡	2.0	과일및야채주스	1.4	과일가공품	2.1	과일가공품	1.8
18	케이크	1.9	차	1.3	맥주	2.0	케이크	1.7
19	말린고추	1.9	소주	1.3	아이스크림	1.9	소주	1.7
20	과일및야채주스	1.7	요구르트	1.2	참깨들깨	1.9	김치	1.7
21	과일가공품	1.6	김치	1.1	채소가공품	1.7	두부	1.7
22	두부	1.4	사탕및젤리	0.9	생수	1.7	채소가공품	1.3
23	양주	1.4	기타미분류식품	0.9	과일및야채주스	1.7	생수	1.3
24	차	1.2	초콜릿	0.9	젓갈	1.6	김	1.2
25	와인과일주	1.1	과일가공품	0.8	참기름들기름	1.6	기타조미식품	1.2
26	두유	1.0	떡	0.8	두유	1.5	기타수산가공품	1.2
27	김	1.0	기타조미식품	0.8	김	1.5	국수류	1.1
28	채소가공품	1.0	국수류	0.8	마른멸치	1.3	사탕및젤리	1.1
29	기타수산가공품	1.0	치즈	0.7	참깨조청	1.3	기타미분류식품	1.1
30	기타조미식품	0.9	햄및베이컨	0.7	기타수산가공품	1.1	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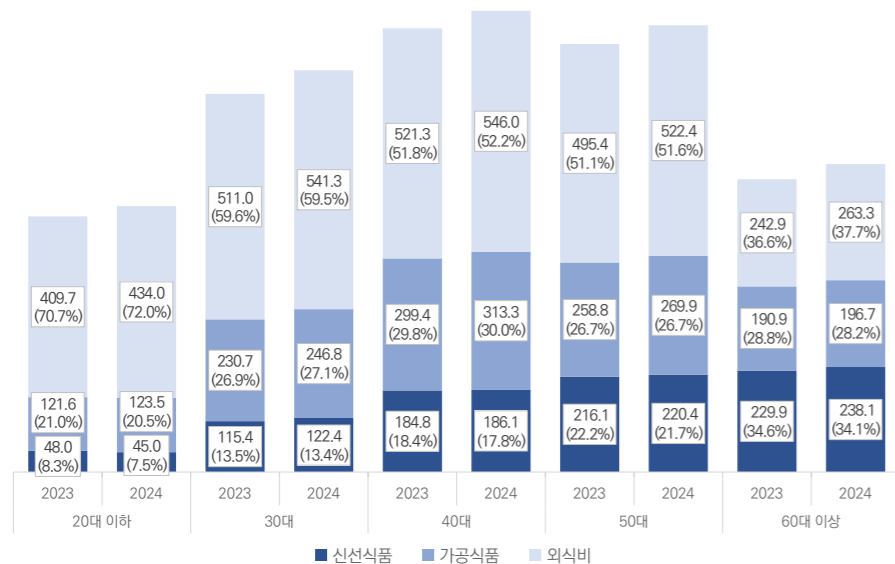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4.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지출 변화

-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40대인 가구의 식품 소비지출이 가장 많고, 50대, 30대 가구의 순서임. 2024년 월평균 외식 지출 비중은 20대 이하와 40~60대에서 확대된 반면, 30대 가구에서는 약간 감소함에서는 약간 감소함.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은 가구주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를 제외한 연령대 가구에서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 비중은 모든 가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별로 7.5~34.1%로 차이가 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2024년 신선식품비의 경우 모든 연령대 가구에서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신선식품비 비중은 모든 연령대 가구에서 감소함.
- 가공식품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별로 20.5~30.0%로 차이가 크지 않고,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가공식품 월평균 지출액이 31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음. 2024년 가공식품비는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에서 전년 대비 1만 6천 1백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타 연령층에서도 모두 증가함. 2024년 가공식품 지출 비중의 경우 가구주 30대와 40대 가구에서 0.2%p 증가한 반면, 가구주 20대 이하,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가공식품 비중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가구는 비슷한 수준임.
- 월평균 외식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주 연령대는 20대 이하 가구로 2024년 72.0%로 가장 크며, 30대 59.5%, 40대 52.2%, 50대 51.6%, 60대 이상 37.7%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식 지출 비중이 감소함. 2024년 월평균 외식 지출 비중은 가구주 20대 이하 가구에서 1.3%로 가장 크게 증가함.

■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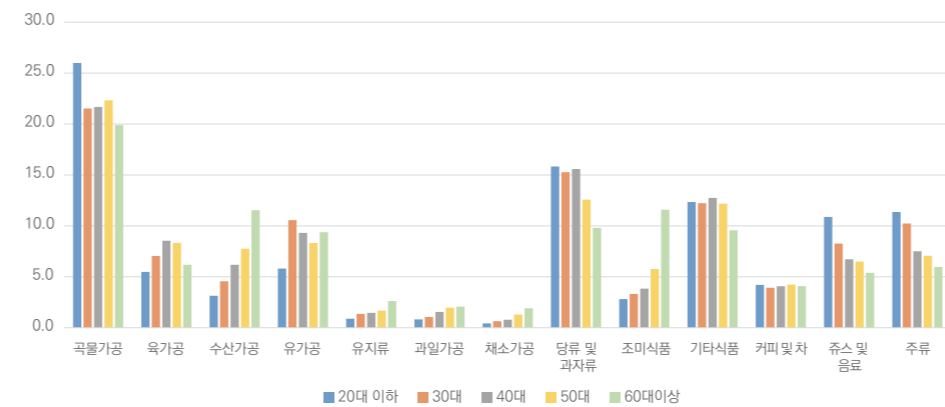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특히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는 26.0%로 가장 높았고, 30대 가구와 60대 이상 가구는 각각 21.5%, 1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임.
-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의 비중이 증가하며, 유지류, 조미식품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집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됨.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조미식품 비중은 11.6%로 20대 이하 가구의 2.8%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 반면,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주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조적으로 나타남. 커피 및 차류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약 4% 내외의 비슷한 지출 비중을 보임.
-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이 40대까지는 연령대 증가에 따라 비중이 함께 높아지지만 5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육가공품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다 60대 이상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주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에서 식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의 비중 순위가 1, 2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말린고추의 경우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50대에서도 25위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30위권 내에 존재하지 않음.
- 즉석·동결식품은 20~30대 이하 가구에서 3위, 40~50대 가구에서 4위로 상위권에 존재하나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8위로 낮아짐. 맥주의 경우, 20대 이하~30대 가구에서 5위를 차지하지만, 40대에서는 8위, 50대에서는 7위, 60대 이상에서는 17위로 순위가 낮아짐. 기타 음료수, 생수 등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 우유의 경우 20대 이하 가구에서 13위, 30대 8위, 40~60대 5위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은 순위를 점함.

■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비중 상위 품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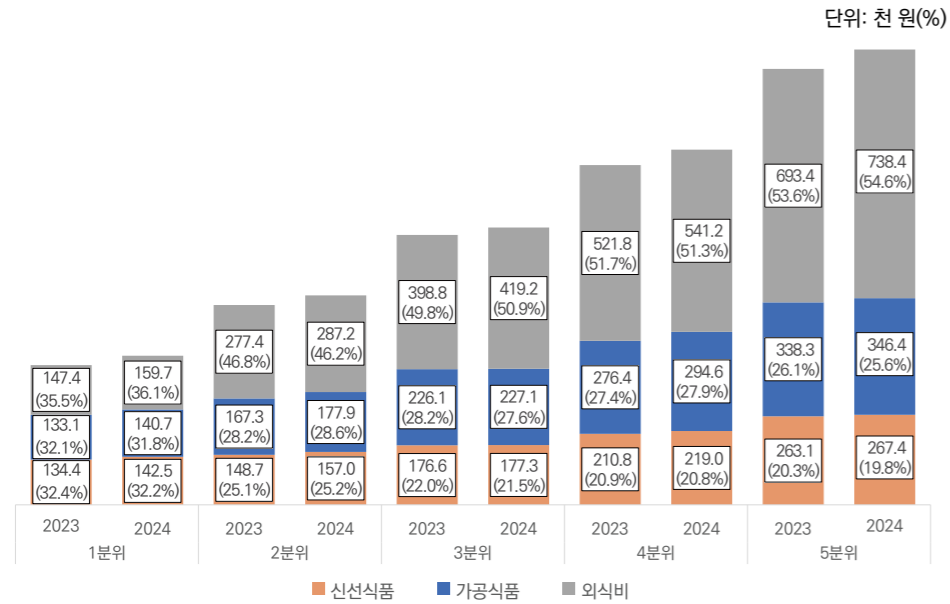
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및기타빵	10.7	식빵및기타빵	9.6	식빵및기타빵	9.3	식빵및기타빵	9.0	식빵및기타빵	6.5
2	한과기타과자	7.9	한과기타과자	8.2	한과기타과자	8.3	한과기타과자	6.6	기타육류가공품	5.2
3	즉석동결식품	6.9	즉석동결식품	5.3	기타육류가공품	6.3	기타육류가공품	6.5	한과기타과자	4.8
4	기타음료수	6.4	기타육류가공품	5.3	즉석동결식품	5.3	즉석동결식품	4.9	말린고추	4.2
5	맥주	5.7	맥주	5.0	우유	4.5	우유	3.7	우유	4.1
6	아이스크림	5.3	기타음료수	4.4	아이스크림	4.1	반찬류	3.6	반찬류	3.4
7	기타곡물가공품	4.5	아이스크림	4.2	반찬류	4.0	맥주	3.4	떡	3.4
8	라면류	4.1	우유	4.1	맥주	3.8	기타음료수	3.4	즉석동결식품	3.2
9	기타육류가공품	4.1	반찬류	3.2	기타음료수	3.6	아이스크림	3.3	커피	3.0
10	케이크	3.9	케이크	2.9	라면류	3.3	라면류	3.3	요구르트	3.0
11	생수	3.3	커피	2.9	커피	3.0	커피	3.2	기타곡물가공품	2.9
12	커피	2.7	기타곡물가공품	2.9	기타곡물가공품	2.8	기타곡물가공품	2.9	두부	2.4
13	우유	2.4	라면류	2.8	요구르트	2.3	요구르트	2.5	기타음료수	2.4
14	반찬류	2.3	분유	2.5	케이크	2.2	떡	2.4	소주	2.3
15	양주	2.2	과일야채주스	2.3	과일야채주스	1.9	김치	2.2	라면	2.2
16	요구르트	1.5	요구르트	2.0	김치	1.6	과일가공품	2.0	아이스크림	2.2
17	차	1.5	생수	1.6	떡	1.6	소주	1.8	맥주	2.1
18	와인과일주	1.4	양주	1.5	과일가공품	1.6	과일야채주스	1.8	과일가공품	2.1
19	과일야채주스	1.3	와인과일주	1.5	소주	1.5	케이크	1.7	김치	2.0
20	소주	1.2	사탕및젤리	1.4	사탕및젤리	1.5	두부	1.6	채소가공품	1.9
21	김치	1.2	떡	1.4	기타미분류식품	1.4	생수	1.4	참깨들깨	1.6
22	사탕및젤리	1.2	소주	1.3	치즈	1.2	채소가공품	1.3	젓갈	1.6
23	떡	1.1	치즈	1.3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3	과일야채주스	1.5
24	기타미분류	1.1	이유식	1.2	생수	1.2	김	1.2	김	1.5
25	초콜릿	1.0	기타미분류식품	1.2	햄베이컨	1.2	말린고추	1.2	생수	1.5
26	기타조미식품	1.0	김치	1.1	두부	1.2	기타수산가공품	1.2	두유	1.4
27	국수류	1.0	기타조미식품	1.1	김	1.1	햄베이컨	1.1	참기름들기름	1.4
28	치즈	0.9	과일가공품	1.1	차	1.1	어묵	1.1	기타수산동물	1.3
29	햄베이컨	0.8	차	1.0	기타수산가공품	1.1	국수류	1.1	마른멸치	1.2
30	과일가공품	0.8	두부	1.0	국수류	1.1	기타미분류식품	1.1	국수류	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5.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지출 변화

-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식품 월평균 지출액이 크게 늘고, 외식비 비중이 확대됨. 2024년 소득 1분위(0.5%p), 3분위(1.1%p), 5분위(1.0%p) 가구에서는 전년도 대비 외식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비 지출 비중은 감소함. 반면, 소득 2분위와 4분위 가구의 경우 외식비 비중이 각각 0.6%p, 0.4%p 감소하고, 가공식품 비중이 각각 0.4%p와 0.5%p 증가한 특징을 보임.
- 모든 소득 분위 가구의 2024년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신선식품비 비중은 소득 2분위 가구(0.2%p 증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0.5%p 내외로 소폭 감소함.
-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4분위 가구에서 전년 대비 1만 8천 원의 큰 증가세를 보임. 가공식품비 비중의 경우, 소득 2분위(0.4%p)와 소득 4분위(0.5%p)에서는 증가하였고, 다른 소득분위 가구에서는 0.3~0.6%p 감소함.

### 소득분위별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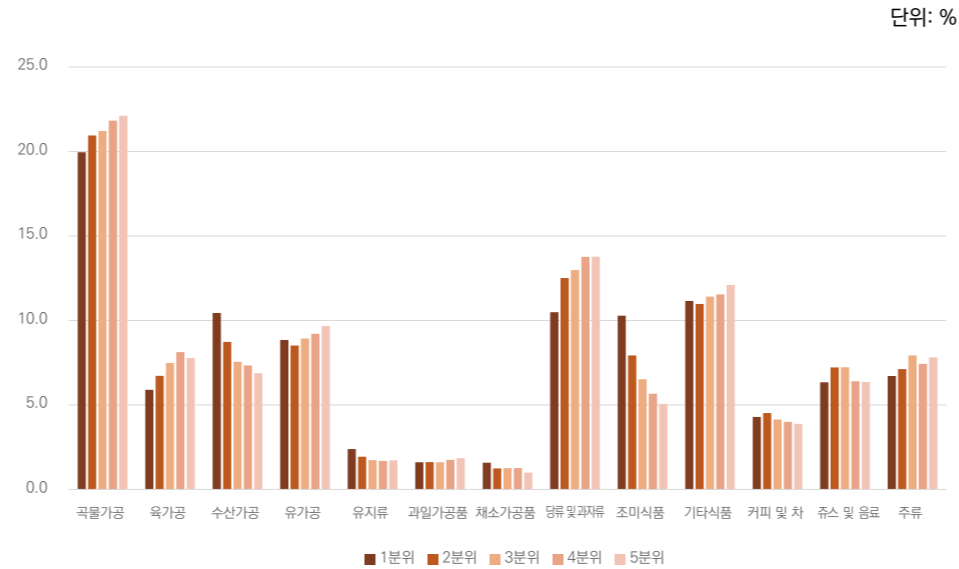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유가공품, 기타식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 수산가공품, 유지류, 조미식품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조미식품은 5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은 5.1%인데 반해 1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 10.3%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 육가공품의 경우 이전에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24년의 경우, 소득 5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이 소득 4분위 가구에 비해 적은 수준임.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음료, 주류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 비중 비교



주: 곡물가공품 지출액은 빵 및 떡류를 포함, 수산가공품 지출액은 염건수산, 기타수산가공, 해조·해조가공품을 합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식빵 및 기타빵의 비중 순위가 1순위, 한과 및 기타과자 2순위, 기타육류가공품이 3위로 나타남. 소득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 즉석·동결식품이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함됨.
- 말린 고추는 소득 1분위 가구에서 7위, 2분위 가구 15위, 3분위 가구 18위, 4분위 27위, 5분위 30위를 차지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액 비중 순위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음.
- 주류의 경우, 맥주는 소득 1분위 가구에서 13위, 2분위 가구 10위, 3분위~5분위 가구는 7위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주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와인 및 과일주는 소득 5분위 가구에서만 순위권에 포함됨.
- 특히 기타미분류식품은 2024년에도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3분위 이상 가구에서 지출 비중 순위 30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됨.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다양성 선호 추세에 따라 기존 분류 내 포함되기 어려운 식품 품목에 대한 가구 지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소득분위별 가구의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 상위 품목 비교

순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기타빵	6.4	식빵기타빵	7.7	식빵기타빵	8.3	식빵기타빵	8.9	식빵기타빵	9.5
2	한과기타과자	5.2	한과기타과자	6.4	한과기타과자	6.8	한과기타과자	7.3	한과기타과자	7.2
3	기타육류가공품	4.8	기타육류가공품	5.2	기타육류가공품	5.8	기타육류가공품	6.2	기타육류가공품	6.1
4	반찬류	4.1	즉석동결식품	4.8	즉석동결식품	4.9	즉석동결식품	4.7	즉석동결식품	4.6
5	즉석동결식품	4.0	우유	3.9	우유	3.9	우유	4.1	우유	4.2
6	우유	4.0	기타음료	3.8	기타음료	3.8	아이스크림	3.6	반찬류	4.0
7	말린고추	3.4	커피	3.3	맥주	3.7	맥주	3.5	맥주	3.8
8	커피	3.2	아이스크림	3.2	아이스크림	3.3	기타음료	3.4	아이스크림	3.7
9	기타음료	3.1	반찬류	3.1	반찬류	3.2	반찬류	3.2	기타음료	3.1
10	라면류	3.1	맥주	3.1	커피	3.1	라면류	3.1	기타곡물가공품	2.9
11	기타곡물가공품	3.1	라면류	3.1	라면류	3.0	커피	2.9	커피	2.8
12	요구르트	2.7	기타곡물가공품	3.1	기타곡물가공품	2.9	기타곡물가공품	2.9	라면류	2.6
13	맥주	2.6	떡	2.5	요구르트	2.6	요구르트	2.3	요구르트	2.5
14	떡	2.5	요구르트	2.5	떡	2.2	떡	2.2	떡	2.3
15	소주	2.5	말린고추	2.4	소주	2.0	케이크	2.0	케이크	2.2
16	아이스크림	2.4	소주	2.1	케이크	1.9	과일야채주스	1.8	과일야채주스	2.1
17	두부	2.2	김치	1.9	과일야채주스	1.8	과일가공품	1.7	과일가공품	1.8
18	김치	2.1	생수	1.9	말린고추	1.8	김치	1.6	김치	1.7
19	생수	2.0	두부	1.8	김치	1.8	소주	1.6	두부	1.4
20	과일가공품	1.6	과일야채주스	1.6	생수	1.6	두부	1.5	소주	1.3
21	채소가공품	1.6	과일야채주스	1.6	과일가공품	1.6	채소가공품	1.3	치즈	1.2
22	김	1.5	케이크	1.4	두부	1.6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2
23	두유	1.4	채소가공품	1.2	채소가공품	1.3	기타미분류	1.2	기타미분류	1.2
24	참깨들깨	1.4	두유	1.2	기타조미식품	1.2	사탕젤리	1.2	생수	1.2
25	참기름들기름	1.4	차	1.2	김	1.1	생수	1.2	사탕젤리	1.2
26	젓갈	1.3	김	1.2	기타수산동물	1.1	김	1.2	와인과일주	1.1
27	국수류	1.3	기타수산동물	1.1	국수류	1.1	말린고추	1.2	김	1.1
28	과일야채주스	1.2	국수류	1.0	사탕젤리	1.1	기타수산동물	1.1	기타수산동물	1.1
29	마른멸치	1.1	기타조미식품	1.0	차	1.0	치즈	1.1	차	1.1
30	기타수산동물	1.1	사탕젤리	1.0	기타미분류	1.0	햄베이컨	1.1	말린고추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6. 2024년 가공식품 소비의 특징

- 2024년 가구의 소비지출과 식품 소비지출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2%, 0.9% 증가하여, 실질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에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실질 식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식품 소비 증가율은 전체 소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 2021년 이후 실질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보다 낮으며, 2022년 이후 명목 식품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식품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됨.

- 식품 유형별로는 외식 지출이 증가하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월평균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특징을 보임. 2024년 외식 월평균 지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고, 외식 월평균 지출 비중은 49.9%를 기록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49.1%를 상회함.
- 식품 품목별로는 조미식품, 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세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유지류, 채소가공품, 쥬스 및 음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코로나19 기간 혼술 문화로 주류 소비가 증가했으나, 외식 회복 및 저도주 선호 트렌드가 확산되며 주류 수요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보임. 2024년 월평균 지출 비중 중 반찬, 기타음료는 꾸준한 순위를 유지하여 편리 및 건강 지향, 다양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임.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1인 가구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행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 곡물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등 간편식 소비 비중이 높으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조미식품, 육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집밥 선호 및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공식품 월평균 지출이 가장 많은 계층은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로, 육가공품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조미식품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쥬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소득분위별로는 모든 소득분위 가구에서 기타식품의 월평균 지출 비중이 높아 간편화, 고급화 트렌드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측됨.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의 월평균 지출 비중이 상승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월평균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은 수산가공품, 조미식품임.

### 저자 정보

- 이계임 명예선임연구위원(061-820-2326), lkilki@krei.re.kr
- 정희주 연구원(061-820-2347), luire@krei.re.kr